

왜 거래처 사람을 회사의 직함으로 부르나요?

일본에서는 그 사람 고유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때문에 호칭에도 직함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

1. 일본 고유의 호칭 방법

- 회사의 상사는 물론 동료들 부를 때 종종 이름(First Name)을 쓰는 미국과 영국 사람들과는 달리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
 -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를 ‘사장’ 혹은 ‘전무’ 라고 부르며, 이름 뒤에 회사직함을 붙여 ‘다나카(田中) 사장’ ‘스즈키(鈴木) 과장’ 이라고 함
 - 자신이 속해있는 직장뿐 아니라 거래처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을 사용함
-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름이 아닌 성으로 상대를 부르는 것이 기본임
 - 일반적으로 야마다상(山田さん)과 같이 성 뒤에 상(さん)을 붙이며,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상대를 성을 생략하고 이름만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음

2.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

- 일본에서는 특정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
 - 가령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라는 단어 뒤에 상(さん)을 붙이고, 생선가게 주인은 사카나야상(魚屋さん), 야채가게 주인은 야오야상(八百屋さん), 경찰은 오마와리상(お巡りさん), 선생님은 센세이(先生)라고 부르는 등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회의 역할이 호칭이 되는 경우가 많음
- 사회생활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호칭 역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변하고 있음
 - 결혼한 신랑 신부가 처음에는 서로 상대의 이름 혹은 애칭으로 부르다가, 자식이 태어나면 아내는 남편을 오토상(お父さん) 혹은 파파(パパ), 남편은 아내를 오카상(お母さん) 혹은 마마(ママ)로 부름

3. 호칭의 변화

-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최근에는 각각의 조직에서의 역할보다도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존중하여 이름 뒤에 단순히 상(さん)을 붙여 이토상(伊藤さん), 이케다상(池田さん) 등으로 부르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임
 - 따라서 사업을 하는 거래처의 직원을 부르는 경우라면 이케다과장(池田課長) 혹은 이케다상(池田さん)과 같이, 그 사람이 속해있는 회사에서의 직함 혹은 성 뒤에 상을 붙이면 됨